



정교회 주보



성 스피리돈 주교

루가 제 11주일

성 스피리돈 주교 / 주님 선조들의 축일

제 8조, 조과복음 3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님 선조들의 찬양송 / 188, B 209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 사도경 : 에페소 5:8~19 / 봉독서 336
- 복음경 : 루가 14:16~24 마태오 22:14 / 130, B 7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스피리돈 주교

스피리돈 성인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났고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양치는 목동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큰 겸손과 사랑의 덕을 지니고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리나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안타깝게 부인과 사별한 후에 혼자가 되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미덕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교 서품까지 받았습니다. 성인의 사랑의 실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박해자들이 성인

의 것을 약탈할 때 도움을 주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 1차 세계 공의회에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삼위일체의 하나인 본질을 보여주면서 이단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성인의 기적은 안식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성인의 성유해가 그리스 켈키라 섬에 온전히 보존되어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회 성인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 받는 성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3~4세기)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각각의 세례 받은 신자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II 고린토6:16)라고 사도 바울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I 고린토3:16)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한 성당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1.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몸과 심령을 조금도 더럽히지 말고”(II고린토7:1)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죄로 인해 더럽혀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다시 받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는”(히브리서9:14)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합시다.

2. 성당을 가장 아름답게 꾸밉니다.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성전을 위한 장식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덕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머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
모스 성인
은 “모든 것
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람
의 의지와 노
력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계
십니다.



“구원자의 가장 정결한 성전”인 우리의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모님이 가장 정결한 성전인 것은 성모님의 내면에 하느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테오토코스 성모님은 “여러분도 하느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주십니다. 정말로,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할 때마다 우리가 하느님의 처소요 성전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몸담고, 이 귀한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그분이 오고 계시다!

(아나니아스 쿠스테니스 대신부, +2021년 안식)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40일을 시작하였으며, 겸손한 목자들과 지혜로운 동방 박사들처럼 육화하신 하느님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의 작은 동굴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온 교회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동정녀께서 신비롭게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낳으시러 동굴을 찾아드셨나니, 온 세상은 기뻐하고 천사들과 목자들과 함께 아이로 나타나시는 태초부터의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동정녀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정녀와 함께 옵니다. 우리도 아기를 잉태한 동정녀, 신성을 지닌 아기, 그리고 보호자인 요셉과 함께 일시적으로 함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거룩한 가족과 계속해서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쁨이고, 아플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기쁨, 기쁨,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모님이 세상의 기쁨이며, 무엇보다도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 기



간 동안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최고의 가족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가족이 하늘에서 비롯되었기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생겨난 곳, 바로 하늘나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느님과 성인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최고의 친구들 속에 있으며, 우리의 영혼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고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합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겸손한 구유가 될 것이고, 갓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쉬실 것입니다. 아멘!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12월 17일 축일을 맞이하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크리스토퍼 신부님과 신자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성 디오니시오스 성인의 중보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성장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한국정교회 120주년 온라인 전시회

지난 2020년에 기획하고 준비한 한국정교회 120주년 전시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엘레니 임미정 교우, 일리오도로스 신웅철 교우, 루가 임민혁 교우, 엘레니 조혜원 교우가 협력하여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언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를 주제로 120년 한국정교회에서 보전해 오고 있는 성물들과 성서들, 성화들 그리고 그리스 조각품들을 온라인으로 전시합니다. 이 전시회는 서울시와 그리스 대사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reekbyzantineexhibition.com>) 링크로 접속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 드리며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축일 예배 일정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9:00 ~ 10:30 - 성탄절 대시과

오후 5:00 ~ 7:30 - 9시과, 성탄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2021년 12월 25일(토)

오전 8:45 ~ 10:00 - 성탄대축일 조과

오전 10:00 ~ 11:30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각 지역성당의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니콜라스 축일예배

하느님의 도움과 니콜라스 성인의 중보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축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일인 5일에는 주일 성찬예배 후에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셨던 성 니콜라스의 뜻을 본받아 주일 학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었고, 성 니콜라스 축일과 성탄절 맞이 성당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오후 6시에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을 드렸고, 예배 후에는 지하선교 회관에서 한국정교회 120주년 기념 온라인 전시회 개막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 행하려고 했던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모든 성직자들과 그리스 대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어떻게 온라인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지,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일(월)에는 축일 조과와 성찬예배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로만 카프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의 집전으로 이루어졌고,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께서는 설교말씀에서 말로써가 아닌 행동으로 자선을 베풀어 어려움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성인에 대해 “병자의 의사, 위협에 처한 자의 구원자, 죄인의 조력자, 가난한 자의 보물, 슬픈 자의 위로자, 여행자의 동반자, 해상에 있는 자의 주관자,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열렬히 도움을 주는 자”라는 조과의 영광송 성가를 통해 가르쳐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간단한 축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일에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 함께 하셔서 더 축복된 축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성인의 중보로 모두가 건강하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주간예식

12월17일(금) 성 디오니시오스 애기나의 주교, 성 다니엘 예언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